



라비오텍 '이엔해피 정형베개 스마트'

“불면증 잠재우는 특수 음향 기능성 베개”

황미아 라비오텍 사장은 ‘잠 못 드는’ 딸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딸이 어릴 때는 안아서 한 시간씩 자장가를 불러줬다. 하루 서너 차례 반복하다가 지쳐 쓰러져 아이와 함께 자는 일이 많았다. 좀 커서는 자기 전에 클래식 등 조용한 음악을 틀어줬다.

책이나 인터넷을 참고해 나름의 음악 치료 요법을 만들었다. 효과가 있었다. ‘베개 속에서 소리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황 사장은 창업을 결심했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으로 선정된 ‘이엔해피 정형베개 스마트’를 개발하게 된 이유다.

◆골절도 스피커 통해 숙면 뇌파 유도
수면을 유도하는 소리가 베개 속에서 나오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잠 잘 때 나오는 뇌파를 특정 소리로 이끌어 낸다. 집중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인기를 끌었던 엠씨스케어와 비슷한 원리다. 얇은 수면 베개나 ‘세타파’부터 숙면 중 발생하는 ‘델타파’까지 뇌파 유도 기능이 있다.

‘뚜뚜뚜~’ 하는 반복적인 소리부터 파도 등 자연의 소리까지 64개 소리가 뇌파 발생을 촉진한다. 사용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나 음악을 입력해 감상할 수도 있다.

소리나 음악은 베개 속 골절도 스피커에서 나온다. 공기가 아닌 사람의 뼈를 통해 전달된다. 이어폰을 끼지 않고도 ‘혼자만의 소리’를 듣는 게 가능하다. 바로 옆에 다른 사람이 누워도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스피커를 제어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베개와 스마트폰을 선으로 연결한 뒤 내려 받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면 된다.

바로 누웠을 때 뒤 목쪽 경추를 잡아 주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다. 전체 소재는 메모리폼이어서 폭신하지만 경추와

닿는 부위는 딱딱하게 고정돼 있다. 황 사장은 “경추가 휘어지지 않아 어깨 통증이나 거북목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추를 받치는 부위에는 미네랄 스펀지가 들어 있다. “지압 효과를 주면서도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한다. 옆으로 누웠을 때는 귀가 쪽 들어가게 흡음 파놓아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이달부터 본격 판매
라비오텍은 2012년 이 제품을 개발한 뒤 곧바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수면박람회에 제품을 들고 나가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기능성 베개 시장에서 인기

64개 소리로 숙면 뇌파 촉진
누웠을때 지압·혈액순환 효과
“올해 매출 100억원 목표”

도 있는 경쟁사가 소송을 건 탓에 들어졌다. “디자인을 베꼈다”는 게 상대방 주장이었다. 흡소핑 등 주요 유통회사들이 판매를 꺼렸다.

이 소송은 작년 3월에 라비오텍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소송 ‘족쇄’가 풀리면서 주요 인터넷 쇼핑몰과 입점 계약을 추진했다. 지난 15일 개막한 여성발명품박람회에 출품하는 등 전시회에도 적극 나가고 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100억원이다. 최근 기능성 베개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어 제품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황 사장은 “숙면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벌써 알려져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며 “효과가 입증되면 가격이 상환되어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안재광기자 ahnjik@hankyung.com



황미아 라비오텍 사장이 수면 유도용 기능성 베개 '이엔해피 정형베개 스마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art@hankyung.com)로 응모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우림의 형광 등용 리필 반사기 (031)713-1640 △메디라이스의 초간편 측색 취사기 (031)703-7595 △라비오텍의 이엔해피 정형베개 스마트 1588-8320 △코비스의 마이젠 (031)323-1612

대동공업, 케냐에 농기계 수출한다

3년간 트랙터·경운기 등 공급

국내 1위 농기계업체인 대동공업이 올해부터 3년간 아프리카 케냐에 농기계를 공급하기로 했다.

17일 대동공업에 따르면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케냐 농축산수산부가 지난 14일 ‘농업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동공업이 농기계를 공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케

냐 농업부 산하 농업금융은행(AFC)이 사업 주체로 들어갔다. AFC가 대동공업의 제품력, 사후관리 능력, 제품 사용 교육훈련 등의 내용을 평가해 납품 규모와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AFC는 지난 3월 실무진을 한국으로 보내 대동공업 대구공장을 둘러봤다. 엔진 생산부터 완제품 조립까지 생산라인 전반을 살펴보고 돌아갔다. 시실리 카리우키 케냐 농업부 차관과 모하메드 압디

겔로 주한 케냐 대사도 지난 15일 대동공업과 사업을 논의했다.

양측은 다음달 중순부터 2주 동안 케냐 현지 6개 지역에서 농기계 전시 및 시연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대동공업의 20~100마력대 트랙터와 경운기, 콤팩트, 다목적 운반차(UTV)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역당 약 5000명, 총 3만여 명의 농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안재광기자 ahnjik@hankyung.com

여성제인협회 19일 포럼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강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회장 여봉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힐튼호텔 아트리움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 도전 포럼 및 5월 월례회’를 연다.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이 ‘여성 CEO를 위한 혁신 및 조직운영 노하우’에 대해 강연한다.

여경협 서울지회에는 제조·도·소매 건설 등 다양한 업종의 300여개 여성 기업이 가입해 있다. (02)702-4244

“IoT 체성분 분석기로 프리미엄 건강 시장 공략”

〈사물인터넷〉

이상대 아이엠헬스케어 대표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아이엠 자회사 아이엠헬스케어가 체성분 분석기 ‘스마트밸런스’를 출시했다. 체성분 분석기는 몸무게뿐 아니라 몸 안의 지방량과 근육량 등을 측정하는 기기다. 종전까지 인바디가 장악하고 있는 체성분 분석기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상대 아이엠헬스케어 대표(사진)는 17일 “스마트밸런스는 국내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체성분 분석기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라며 “올해 200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밸런스는 체중계처럼 생긴 체성분 분석기뿐 아니라 측정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앱)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식품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와 관련 앱에 대해 동시에 의료기기 허가를 내 준 것은 스마트밸런스가 처음이다. 기존 인바디의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지만 앱은 그렇지 않다.

스마트밸런스는 체성분을 측정하면 무선으로 결과가 모바일 기기에 전송된다. 체성분을 분석해 식단이나 운동 처방을 해준다. 향후 개인 트레이닝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직접 상담이 가능한 오픈 프라이빗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엠헬스케어는 통신사와 손잡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이 대표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통신사가 건강관리 서비스에 뛰어들었



다”며 “현재 국내외 통신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이엠헬스케어는 2006년 삼성전기에서 분사된 아이엠이 2011년 설립된 의료기기 회사다. 이 대표는 삼성전기 책임연구원을 거쳐 아이엠 전략기획실 상무를 지냈다. 아이엠헬스케어 설립 때부터 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

아이엠헬스케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립선 암진단 기기를 개발해 임상을 끝마친 상태다. 세포가 방출하는 빛에너지 감지해 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진단기기와는 달리 직접 암(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은 16억원으로 아직 미미한 편이다. 이 대표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에 아직 연구용으로만 판매하고 있다”며 “일반 병원을 대상으로 판로를 넓히기 위해 기능을 더 강화하고 부가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미현기자 mwise@hankyung.com

코오롱 ‘인보사’ 美 임상 3상 진입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FDA, 세계 최초 승인

코오롱그룹(회장 이웅열)의 자회사 코오롱생명과학은 퇴행성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 3상 진입을 승인받았다고 17일 발표했다.

퇴행성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임상 3상에 진입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임상 3상 승인은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시험에 들어가도 된다는 허가를 의미한다. 3상을 끝내면 최종적으로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인보사의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500여명이 넘는 임상 3상을 단

독으로 시행할지, 글로벌 제약사 등에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을 할지 등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정상 동종연골세포와 세포분화를 촉진하는 성장인자를 가진 세포를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유전자 치료제다. 국내에서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2개 병원에서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올해 7월 임상을 마무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내년 중 아시아 시장으로 본격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기자 mwise@hankyung.com

2,000~4,000만원

단순투자만으로 매월 500만원이상 연금수익 가능?!

현재 계약 즉시 수익 발생 중! 확인 가능!

친구사이 대리운전 전국 대리콜 발생수익! 공동분배!!

현재 잔여지사 단 **79개뿐!!**(마감임박)

단순투자창업자 246명 한정모집중! 167개 마감완료!

특징! 친구사이 대리운전 착한대리협동조합 대리기사 회관설립!!

전국 법인 및 단체콜 영업 + 안심주차카드 영업 + 개인대리번호 영업 = 투자자 수익극대화!

투자 창업지사는 일체의 활동없이 평생 안정적인 연금성 수익발생! (폭발적인 인기로 지사 분양 마감 임박)

누구나 단 ‘한번’의 투자로 평생 연금성 수익발생!!

7942-7942(친구사이 친구사이)의 지사는 단 ‘한번’ 투자만 하고 영업, 관리, 홍보, 사무실, 집기, 직원없이! 일체의 활동 없이 평생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시스템 (모든 영업, TV 광고는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사업설명으로 모든 수익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업계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병준 변호사의 ‘착한대리어플’ 출시!

전국 TV CF 방영 및 전국민 안심기가 프로젝트!!

1. 범칙금 두배 보상!
2. 무보험 기사 아웃!
3. 불친절 대리기사 아웃!
4. 사고 발생시 전문변호사 무료지원!
5. 전 조합원 친절교육 이수!

구분	연간 수익	연간 비용	순이익
초기 투자	2000~4000	0	2000~4000
월간 수익	500	100	400
월간 비용	0	100	0
순이익	500	100	400

김병준 변호사 강력추천!!

지금 바로 친구사이 대리운전 지사를 선정하세요. 대리업계의 새로운 혁명-성공창업의 시작입니다!

3월25일부터 TV CF홍보시작

CF모집 - 가수 유수현, 송민환 변호사 김병준

창업안내 www.7942-7942.com

지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설명 동영상”** 을 확인 하세요

02-875-7942

010-8997-4070 / 010-8847-6491

행복을 주는 사람들

친구사이 대리운전

위치 : 서울대입구역 6번출구

NAVER 친구사이대리운전

가속 상점 **juny25**